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언제부터인가, 티브이 지상파 방송 편성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눈을 찡고 들여다봐도 코미디 프로그램은 찾아볼 길이 없다. 그 많던 코미디 프로그램은 왜 사라졌으며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동안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유머 1번지'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개그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술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유머와 위트를 뒤섞은 콩트로 우리를 즐겁게 했다. 거지와 위선의 가면을 쓴 쩌쩌한 정치에 대한 날선 풍자로 서민에게 웃음을 주며 번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은 명맥이 끊겼다. 딱딱한 나날의 삶에서 그나마 근심과 걱정을 덜어 주는 노릇을 하던 코미디가 없으니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다. 티브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웃음을 주던 그 많던 코미디언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하고 있을까?

웃음이 항상 기쁜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은 아니다. 웃음은 복잡한 프로세스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한 표현이다. 웃음은 대상과 당위적 기대 사이에 비대칭이

그 많던 코미디 프로그램은 어디로 갔을까?

형성되는 찰나에 속구진다. 잘 차려입은 신사가 거리에 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질 때 사람들은 웃는다. 이때 제3자의 웃음은 그 실수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는 안도감에서 나온다. 이 웃음에는 주체의 우월감과 짓웃음이 묻어난다. 타자의 낭패에서 즐거움의 계기를 찾는 이 무의식의 행동에 깃든 짓웃음은 악취미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북동쪽에 위치한 압달라에서 살았는데,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진 철학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나이 아흔 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온종일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항구로 나와서 부둣가 노동자를 바라보며 웃어대는 그를 가리키며 노망에 들었다고 수군거렸다. 유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이 늙은 철학자를 관찰한 뒤 그가 미친 것도, 병에 든 것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늙은 철학자가 온종일 발작하듯이 웃어댄 것은 주민들의 부조리한 상업 활동과 어리석음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생리학자들은 웃음이 인간 내부에 있는 과도한 우월 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코미디언들의 바보 연기가 웃음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비실이' 배삼룡, '맹구' 이창훈, '영구 없다'의 심형택 같은 바보 연기의 달인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 안의 우월의식을 부추긴다. 그들이 연기한 바보스러움과 엉뚱함이 우리 안의 '자만과 착란'을 자극해 웃음을 터지게 한다.

광대의 익살극이 유행하던 시대의 천재 시인 보들레

르는 웃음을 '불행의 징후'라고 했다. 웃음이 제 고통에 대한 신체적 경련일 때, 혹은 제 자만의식을 분출하는 행위일 때 이것은 내면의 불순물이고, 제 안의 '불행의 징후'를 타인에게 되비추는 것이지 지나지 않을 테다. 인간은 웃을 줄 아는 유일한 존재다. 웃음은 근심과 시름을 잊게 하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고, 억압과 고통에 맞서는 비판과 저항의 뜻을 담아낸다. 웃음은 근엄한 독재와 파시즘, 광신주의에 균열을 일으킨다. 약에 항변하는 저항의 한 방식인 셈이다.

경제 불황에 전염병의 팬데믹이 덮치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암울하고 딱딱해졌다. 그럴수록 유머와 웃음이 필요하다. 웃음은 현실 극복 의지를 북돋는 청량한 자극제가 된다. 또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찢든 마음의 치유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맘껏 웃다 보면 감정을 옥죄는 불안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터이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진 자리를 요즘엔 '떡방'이 꿰찼다. 하지만 상업주의에 매몰된 개인 미디어에서 방출하는 '떡방'이 자어내는 웃음은 상품으로 소비될 뿐이다. 코미디를 대신하는 '떡방'은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것은 비틀린 웃음만을 낳는데, 그런 웃음은 가짜 치료제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진짜 즐거움으로 짝한 유머다. 남이건 자기건 아무도 해치지 않는 무해한 웃음들이다. 그런 유머와 웃음들이 우리를 살리는 명약이다. 우리를 웃기는 코미디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들의 활동 무대인 공중파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이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

社說

광주 공공개발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신도시 개발 대상지인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는 광주시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의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의당 광주시당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산정지구에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정지구에서 총 479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229건이 2018년과 2020년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2018년은 광주시가 산정지구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 후보지로 검토한 시기다. 또한 2020년은 LH가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산정지구를 제시한 시기다. 따라서 공무원과 LH 직원 등 관련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래된 토지 중 단독주택 용지를 받기 위한 지분 쪼개기 거래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거래도 6건이나 확인

된 것을 보면 투기성 거래라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 광주시는 산정지구 투기 의혹이 일자 최근 공직자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 '공무원 두 명이 토지를 거래했지만 투기성 거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셀프 조사'여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광주시와 시 산하 도시공사 등이 추진한 사업은 대형 개발사업만 11건이다. 이 중 8개 사업의 사업비만 2조5000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사업 발표 전부터 인근 땅값이 들쭉였던 점을 보면 개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산정지구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차체에 개발 정보를 접하기 쉬운 공직자는 물론 의원과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해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사법기관이 나서서 공직자들의 친인척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살살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40년 만의 고백과 사죄 그리고 아름다운 용서

"40여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 다.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박병현 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계엄군 A(73)씨가 박 씨의 형인 박종수(73) 씨 등 유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이에 박 씨는 "늦은 사과라도 고맙다"며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마음 편히 살아달라"고 A씨를 용서하고 께안아 주었다.

계엄군이 자신의 총격으로 절명한 피해자의 유족을 만나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의 증언은 5월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A씨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총격 당시 상황에 대해 "화순 방향으로 걸어 가던 젊은 남자 두 명이 공수부대를 보고 도망쳤는데 정지를 요구했으나 달아나길래 무의식적으로 사격을 했다"고 말했다.

다. 또한 "숨진 박 씨의 사망 현장 주변에 선 총기 등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는데 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그날 5월의 진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계엄군 A씨의 이번 사죄를 계기로 당시 활동했던 공수부대의 행적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계엄군의 주력으로 꼽히는 7공수부대와 11공수부대의 유휴 진압과 학살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적은 광주항쟁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암매장과 행방불명자 등을 규명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아울러 5월의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A씨와 같은 참회의 고백과 양심선언이 잇따라야 한다. 그들 또한 상부의 명령에 따른 피해자들인 만큼, 적극 증언에 나서으로써 과거를 훌훌 털어 버렸으면 한다.

無等鼓

중장년 세대에게 로봇은 꿈 많은 어린 시절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4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로봇하면 아톰이나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를 떠올렸다. 그 당시 만화들이 그려 낸 수준의 로봇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상 곳곳에 로봇이 가까이 존재한 적은 없었던 듯하다. 특히 공장의 생산 로봇부터 청소 로봇, 말하는 AI 로봇, 수술 로봇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로봇이 쓰이고 있다.

로봇은 어떤 종류이든 기계와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로봇이라는 단어를 공학적인 어로 받아들이는. 하지만 생각과 달리 로봇(robot)이란 말은 희곡 제목에서 유래했다. 로봇의 어원은 '일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체코어 '로보타'(Robota)에서 비롯됐으며, 1920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섬의 인조인간'(Rossum's Universal Robots)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한다. 공장 운영자 로섬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간 대신 개발한 로봇을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이다. 이 작품 이후 영화와 소설에 로봇이라는

말이 대거 등장한다. 급기야 1961년 현대 로봇의 시조인 자동차 공장용 로봇팔 유니메이트(Unimate)가 개발됐다. 이 시기 로봇은 원시적인 수준이었지만 당시 나온 만화와 영화는 로봇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그렸다. 그중 일부는 현재의 과학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만화영화 '아톰'이 인기를 끌던 시기인 1966년, 미국에서 개봉한 공상영화 '마이크로 결사대'에는 현재 한창 연구·개발 중인 마이크로로봇의 개념이 나온다. '마이크로 결사대'는 5명의 과학자와 요원이 초미세 크기로 줄인 잠수함을 타고 뇌사 상태에 빠진 과학자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 혈전을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원제는 '환상 여행'(Fantastic Voyage)이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로봇이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분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전남대 로봇연구소가 최근 질병의 종류와 발병 위치에 따른 맞춤형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다 한다. 지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재희회 사회부장 chae@

환상 여행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종교칼럼

자선과 탐욕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지금 가톨릭 교회는 '사순(四旬) 시기'를 보내고 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동참하여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시간이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이 시기에 실천해야 하는 것은 '기도, 단식, 자선(慈善)'이다. 사순 시기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여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단식하면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선으로 기도의 인식과 단식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시기다. 그런데 자선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불행한 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 하는데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다. 왜 자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자선의 사전적 의미는 '선의를 베풀. 특히 불행·재해 등으로 가난하거나 단식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시기다. 그런데 자선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불행한 이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려 하는데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다. 왜 자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개신교 신학자 프리드리히 쇼를렘머(Friedrich Schorlemmer)는 저서 '탐욕과 행복'에서 탐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활기차고 충만하게 살고자 행복을 갈망한다. 그런데 이러한 갈망의 배후에는 탐욕이 숨어 있다. 탐욕은 극단적으로 표현된 삶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다." 탐욕을 근절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탐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국 아무 의욕 없이 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탐욕의 힘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 식별해야 한다. 인간에게 욕심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어야 인간의 삶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모두가 간절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아도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의 욕심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욕심을 지나치게 탐하여 탐욕에까지 이르게 되면 큰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식은 타인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려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을 위해 가까이 고통을 감내하게 해 줍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선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탐욕의 극단적인 삶을 멈추게 할 것이다. 탐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감은 밀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지만 자선을 통해 얻어지는 성취감은 없어지지 않는 보물과도 같은 행복이다. 채움으로써 스스로 느끼는 기쁨·행복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느끼는 기쁨·행복은 확연하게 다르다. 자선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 빛이라면, 탐욕을 통해 채워지는 성취감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사순 시기 동안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을 행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쇼를렘머가 말한 '탐욕은 꼭 필요한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에, 우리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돌보시는 하느님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선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탐욕은 너무나 짙은 어둠이 되어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어둠이라는 탐욕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미얀마의 군부 독재는 극단적인 탐욕의 끝이다. 어둠을 가중시키는 탐욕을 우리의 자선을 통해 빛으로 바꾸자. 없어지지 않는 보물과도 같은 행복을 만들어 보자.

기고

유역 통합 관리를 통한 물의 가치 실현



양진식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

세계적인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 황하, 인더스, 이집트 나일과 메소포타미아를 살펴보면 인류의 문화가 이들 지역의 강과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류의 기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좌우하는 필수 자원이며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해 왔다.

한데 경제 성장과 산업화, 인구 증가 등으로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강수 현상이 증가하면서 물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물의 가치를 기법하고,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UN)은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여 선포하였고 전 세계 각국이 동참하며 물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영산강과 섬진강을 기반으로 하여 예로부터 살기 좋고 비옥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하지만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비단 남의 이야기만

은 아닌 듯 하다.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물 관련 현안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산강 본류는 유량의 60% 이상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이며 농축산업 위주의 지역경제 특성상 비점(非點)오염원 유입이 높은 편이다. 섬진강은 유역 간 물 이동 등 공급 배분 원칙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수량 확보가 필요하고, 여수 등 국가산단 공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유인 도서 중 62%가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에 분포되어 있고, 지방상수도 도서지역 시설도 전체의 5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유역의 물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영산강과 섬진강의 보전을 위해서는 물 순환 전 과정에 대한 유역 통합 물관리의 실현이 필요하다. 통합 물관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질·수량·수생태·환경 등을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하여 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 물관리 구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출범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2020년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을 총괄하는 본부 조직 개편을 통하여 유역 물 현안 해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별히 올해는 유

역의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 다.

우선 유역 내 기존 시설물간 연계를 통하여 최적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유역 내 기존 수자원 시설들의 운영 정보를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수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국가산단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체 수자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하수 처리수 재이용 프로젝트를 지자체·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로 복선화, 노후관 개량, 용도 폐지 저수지 재활용 등을 통해 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러한 지구 노력 및 대안들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될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통합 물관리 및 지속 가능한 물 가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역의 물결기인 영산강과 섬진강이 주는 혜택을 맘껏 누리는 것이야말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인 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이를 위해 더욱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들을 우보전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헤쳐 나가 진정한 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